

## 서천 모시장과 주변의 볼거리

여행작가 김초록

서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산 세모시다. 첨단 화학 제품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지만 섬세함과 통풍성이 단연 으뜸인 옷감, 한산모시. 한산 세모시는 색깔이 백옥처럼 희고 맑으며 울이 가늘고 짜임이 고를 뿐만 아니라 오래 입어도 빛이 바래지 않고 질감이 좋다.

모시는 역시 한산에서 나는 것을 으뜸으로 쳤지만, 주변 지역, 즉 서천과 비인, 홍산, 임천, 남포, 정산, 보령에서도 많이 짚기 때문에 이들 고을을 일러 저산팔읍(苧産八邑)이라 했다. 이들 고을 가운데 모시길쌈의 전통이 이미 끊긴 곳도 있지만, 한산에서는 닻새마다 열리는(끝자리가 1일, 6일인 날) 새벽 모시시장을 통해 질 좋은 모시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산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한때(1950년대) 모시를 짜던 집이 2천5백 가구에 이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 탓인지 1970년대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1980년

대에는 1백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서천나들목을 빠져나와 602번 지방도를 타고 지현리에 있는 한산모시관으로 간다. 한산모시관은 세모시의 맥을 잇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펴뜨리기 위하여 건립했다. 모시관 안에는 전수교육관, 저산팔읍길쌈놀이 전수관, 전통공방, 모시각, 소곡주제조장 등이 갖춰져 있다. 전수교육관 전시실에는 모시의 역사가 기록된 고증서적과 옛베를, 모시길쌈에 필요한



한산모시관



한산모시관에 가면  
모시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구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한복을 비롯한 다양한 모시제품을 볼 수 있다. 또 개량한 베틀로 모시를 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모시제품을 살 수 있다. 모시짜기체험장(전통공방)에 들어서자 타닥타닥, 베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중요무형문화재 14호 기능보유자인 방연옥(58세)씨가 베틀로 모시를 정성스럽게 짜고 있었다.

정교하게 짜여진 모시는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투명하다.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누구나 한번쯤 들었을 이 노래는 모시옷을 입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과 멋을 그려보게 한다. 옛날에는 모시 한 필을 물에 담가 손으로 꼭 짜면 사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울이 가늘다 하여 ‘사발모시’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산 사람들에게 모시 짜기는 그야말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정도의 고된 노동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길쌈하는 아낙네치고 허리 성한 이가 없다’거나 ‘모시를 삼지 못하면 고된 시집살이를 한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만큼 모시짜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거리이자 생계 수단이다.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잡아 잉아걸고/ 올공줄공 짜느니라/ 조그마한 시누이가 그 베 짜서 뭐할라요/ 서울가신 자네 오빠/ 강남 도포 해줄라네” 옛날 아낙네들은 중머리 장단에 맞춰 이 베틀가를 부르며 모시를 짰다고 하는데, 그 힘든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모시 한 필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공정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한 집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분업화되어 일이 훨씬 쉬워졌다. 모시장에서 모시곳을 사다가 짜면 다음 장이 서는 날까지 모시 한 필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속도도 빨라졌다. 게다가 베틀도 기계화되어 수공업 방직공장에서 쓰던 직조기를 응용한 베틀로 대체되었다. 한산면에서 모시를 짜는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부녀자들이다. 모시짜는 일이 워낙 고된 젊은이들은 이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머잖아 한산모시의 맥이

단절될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모시장은 먼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경에 잠깐 섰다가 7시쯤 파장하는 ‘반짜시장’이다. 상인들은 미리 와서 모시검사소에서 검사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시가 되기도 전에 모이기 시작한다. 모시 보따리를 머리에 이거나 오토바이나 경운기에 싣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장터는 왁자지껄하다. 모시장이 이처럼 이른 시간에 서는 것은 새벽 안개 속에서 습기를 머금은 모시필을 백열등에 비춰보아야 품질을 제대로 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시가 되자 장터 한쪽에 마련된 모시검사소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검사소 직원이 나와 아낙네들이 가져온 모시를 능숙한 솜씨로 판별하고는 도장을 꼭 눌러준다. 이렇게 검사 도장을 맡은 모시는 백열등이 켜진 모시장에 진열돼 흥정에 부쳐진다. 이곳 모시장에 나오는 모시는 모시필의 껍질을 벗겨 만든 태모시, 태모시를 가늘게 찌개 실처럼 이어놓은 모시긋, 모시에 콩먹이를 할 때 쓰는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천땅은 볼거리 또한 많아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군(郡)에서 선정, 보호하고 있는 ‘청정구역 10선’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새들

의 보금자리인 금강 하구와 장항 삼림욕장, 춘장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서면 마량리의 동백나무숲(동백정), 서해에서 유일하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마량포구, 마량포구 위쪽에 자리해 있으며, 전어축제가 열리는 홍원항, 백로와 왜가리 떼를 만날 수 있는 판교면 홍림 저수지, 시초면에 있는 봉선 저수지, 해송 천연림으로 유명한 회리산 자연휴양림, 서천 땅에서 가장 높다는 천방산이 그런 곳들이다. 여기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찍은 신성리 갈대밭은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자리한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은 애절한 전설과 함께 50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한다. 동백정 주변의 해안 경치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낙조는 탄성을 자아낸다. 서천은 또한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일명 ‘얇은뱅이술’로 통하는 한산 소곡주와 마량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주꾸미가 그것이다. 소곡주는 술맛이 부드러워 마시다 보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취한다고 한다. 백제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받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다. 옛날에는 소곡주를 빚을 때는 여인들이 목욕하고 흰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정성을 다해 빚

었다고 한다. 서천의 명물인 주꾸미는 다리는 짧고 머리는 가분수처럼 크다. 낙지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촘촘거리며 물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맛은 낙지 못지 않다. 다량포 일대 횃집에선 어디서나 주꾸미 샤부샤부, 전골, 구이, 회 등을 맛볼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서천C-서천-602지방도-지현리 한산모시관, 호남고속도로-논산-강경-23번국도-706지방도-웅포대교-29번국도-한산모시관, 경부고속도로-천안-공주-부여-29번 국도-한산면-지현리. 기차는 장항선을 타고 서천역(서울에서 4시간)까지 가면 되고, 버스는 서울에서 서천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숙박은 서천읍내나 촌장대 해수욕장, 한산면, 금강 하구 주변에 묵을 곳이 많다. 문의 한산모시관(041-951-4100), 서천군청 문화공보실(950-4224), 한산소곡주공장(951-0290) 1570



영화촬영지였던 신성리 갈대숲